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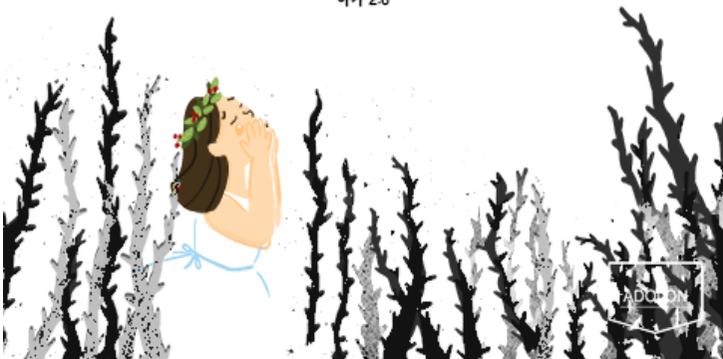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야가 2:6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에서 매일을 살아 갑니다.
보이는대로 길들여지는 저는 가시덤불과같이 모나고, 날카로워지고, 찌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낮고 낮은 기준을 갖다 대어도 그런 자격 없는 저에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 되지않는 눈을 들어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그리스도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십니다.

© 가피플디자인(godpeople.com) 복음경 작가

광고

- 5월 셋째주(21일)에 친구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전도해주세요^^
- 전반기 성경암송 13구절을 암송하는 친구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개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심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최세영 선생님의 결혼식이 이번주 토요일(29일)
오후1시 아트라운 4층 라베네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4월 생일

- 이채운 (4월13일)
- 최노선 (4월21일)

WITH ONE HEART
ONE'S WAY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빌 2:2)



designed by freepik.com

예배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 찬양 **다같이**
- 대표기도 **3학년 2반 대표**
- 성경봉독 출애굽기 24장 1-11절 **고등부 회장**
- 말씀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김영우목사님**
- 기도 **김영우목사님**
- 헌금 '내게있는 향유 옥합' **3학년 2반 대표**
- 헌금기도 **3학년 2반 대표**
- 반별모임 **다같이**
- 광고 **고등부 총무**
- 축도 **김영우목사님**

사도신경

·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1-11절

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 모세가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준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고난



신앙가정 목상만화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가계)> 단행본을 찍어주실 출판사를 찾습니다. dongcheemee@naver.com 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현 올림